

마음 그윽한 곳에 숨겨진 선물, 평화의 묘약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찬송가 412장)

‘엘 시스테마’(El Sistema), 베네수엘라 국립 청년 및 유소년 오케스트라 시스템 육성재단의 이름이다. 길거리의 폭력과 마약으로부터 한 나라를 바꾸었다고 전 세계가 찬사를 던지고 있고, 요즈음 이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학자이자 음악가인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는 1970년대, 음악을 위한 사회행동으로 빈민촌 아이들에게 악기를 하나씩 돌려 레슨하고 합주하는 앙상블 운동을 시작했다. 지하주차장에서 11명으로 시작한 이 자그마한 운동이 크게 성공을 이뤄 이젠 300명의 단원에 이르는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로 우뚝 섰다. 전국 125개 학교에서 1만 5천명이나 되는 엘 시스테마 출신 교사들이 이끄는 이 프로그램에는 25만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정부가 적극적인 문화정책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LA필의 차세대 지휘자인 구스타보 두다멜이 이곳 출신이라 하여 더욱 놀라게 했고, 아바도, 래틀, 주빈 메타, 도밍고, 시노폴리 등 기라성 같은 세계 정상급 음악가가 이들 교육에 가까이 동참하고 있다.

실은 우리나라에도 이 못지않은 또 다른 ‘엘 시스테마’가 있다. 지형식 장로가 이끄는 가덕도의 ‘소양원’이나 ‘부산 소년의 집’ 같은 곳들이 불우한 환경을 음악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대표적인 본보기이다. “사랑의 물결이” “영혼을 고이 싸”는 “하늘 위에서 내려” 온 “맑은 가락”. 음악의 힘은 이토록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주는 것이다.

1889년, 감리교의 캠프집회에 참여한 미국의 전도자 쿠퍼(W. G. Cooper, 19th C.)는 우연히 ‘놀라운 평화’란 제목의 시가 적힌 쪽지를 줌게 되었다. 그는 이 시에 깊은 감동을 받아 곧바로 오르간 건반으로 달려가 WONDERFUL PEACE란 멜로디를 단숨에 작곡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같은 집회에 참여한 전도자 코넬(W.D. Cornell, 19th C.)이 지은 시였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Peace, peace, wonderful peace, Coming down from the Father above).” 그렇다,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평화의 원천(源泉은 하나님 아버지인 것이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410장)를 지은 빌혼(P.P. Bilhom, 1865-1936)도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Peace, peace, sweet peace! Wonderful gift from above)”이라 노래하고 있다.

피조물인 인간은 누구나 마음 “그윽히 깊은 데”에 조물주께서 숨겨주신 최고의 선물, 심금(心琴)이란 악기가 있다. 먼지가 쌓이고 녹슬었더라도 이 악기를 꺼내 들기만 하면 곧바로 ‘즐거움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찬송의 궁정’ 입구인 ‘감사의 문’턱에 다다른다. (시 100:1-4) 도니제티의 오페라에선 가짜 ‘사랑의 묘약(妙藥)’도 효능이 있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온 음악이야말로 평화의 묘약이다. 주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 (시 22: 3),



김명엽
울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교회음악아카데미 원장